

# 광주출신 이미림 '메이퀸' 등극

17번 홀 짜릿한 '칩인버디'

KG·이데일리 오픈 우승

광주출신 이미림(23·우리투자증권)이 짜릿한 칩인버디 한방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림은 5일 경기도 안성 마에스트로 골프장(파 72·6417야드)에서 열린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끓어 3타를 줄였다.

장하나(21-KT), 김효주(18-롯데)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미림은 17번홀에서 나온 칩인버디로 단독 선두로 나선 뒤 함께 7언더파 209타로 경상에 올라 상금 1억원을 밟았다.

장하나와 김효주는 각각 6언더파 210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다. 2011년 에쓰오일 인비테이셔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둔 이미림은 지난해 한국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4명의 선수그룹에서 출발한 이미림은 12번홀까지 2타를 줄였지만 장하나의 기세의 놀려 우승이 쉽지 않아 보였다.

장하나는 10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한때 2위 그룹을 4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장하나는 13번홀(파4)과 15번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려 각각 보기와 더블보기를 적어내며 급격하게 흔들렸다.

더욱이 김효주가 마지막날 4타를 줄여 이미림과 공동 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내 우승컵의 향방은 마지막까



5일 경기 안성 마에스트로 골프장에서 열린 KG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한 이미림이 우승트로피를 보여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알 수 없게 됐다.

버디가 절실했던 이미림은 17번홀(파4)에서 전 두번째 샷이 그린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린 밖에서 10여 m를 남기고 친 어프로치 샷이 그린 위를 굴러 흘러 들어가 버디로 연결되자 이미림은 우승을 확정한 듯 펄쩍 뛰었다.

동반플레이어 장하나가 같은 홀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이미림에게 1타 뒤진 채 18번홀(파5)로 올라갔다. 이미림은 세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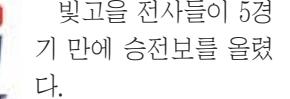
/연합뉴스

위에 올린 뒤 첫번째 퍼트를 흘 바로 옆에 붙여 여유 있게 기다렸다. 반면 장하나는 8m를 남기고 친 버디 퍼트를 흘 엎으로 흘려 아쉽게 대회를 마쳤다.

한편 이미림은 광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으며 2007년 국가대표 상비군, 2008년 국가대표를 거쳐 2009년 데뷔했다. 2012년 KLPGA 투어 기아자동차 제26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 루시오 역전골…광주 FC 2승

부천 FC에 2-1 승리



빛고을 전사들이 5경기 만에 승전보를 울렸다.

광주 FC가 5일 부천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부천 FC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루시오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두었다.

광주는 지난 3월31일 안양 FC와의 원정 이후 5경기 만에 시즌 2승에 성공하며 최하위에서 탈출했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2승1무5패·승점7)는 8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경기 시작과 함께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의 균형을 깨운 것은 부천이었다. 전반 17분 부천의 김태영이 노대호가 미드필드 진영에서 헬러준 공을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광주가 수비수 유종현, 임

하람까지 전방으로 투입하며 준비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한 아쉬운 실점이었다.

하지만 3분 만에 광주의 동점골이 터졌다. 김준엽이 페널티에어리어에서 내려 패스를 받은 박정민이 원발로 부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1-1로 전반을 마감한 두 팀은 후반 전 슈팅 공방을 벌이며 승리 쟁기기에 나섰다. 이날 양팀이 쏟아낸 슈팅은 광주가 16개 부천이 9개.

특히 후반들어 광주 여별규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다. 권용남과 박정민을 대신해 투입한 루시오와 박종인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부천 수비진을 흔들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루시오가 문전 혼전상황에서 박종인이 헐려 준 공을 잡아 원발슈팅으로 연결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일 제85회 동아 수영대회 남고부 수구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남제일고 수구팀.

## 전남 제일고 수구팀 동아수영대회 2연패

전남 제일고등학교(교장 곽종월)

수구팀이 지난 2일 광주 염주 수영장에서 열린 제85회 동아수영대회 남고부 수구 결승전에서 서울체육고를 12-9로 꺾고 전국 최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은 2연패이다.

김동혁(3년)은 결승전에서만 8골을 넣으며 팀 우승을 견인했으며, 전체적으로 대회를 이끈 최현석(3년)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선수들이 배영과 자유영, 접영, 플랫폼 싱크로에서 금메달을 딴다록에 걸었다.

광주체고 출신인 김지현(19-하이코리아)은 여자부 100m 배영 50m(28초89)와 100m(1분1초88)에서 대회 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2관왕에 올랐으며, 오는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출전자격도 확보했다.

앞서 열린 남자고등부 플랫폼 싱크로에서 류민재·홍정석(광주체고)이 289.17점으로 금메달을, 남고부 수

링보드 1m에서 류민재(광주체고 2년)가 은메달을 땄다.

4일 여중부 혼계영 400m에서 광주체중팀(박채희·남상아·김도연·고은별)이 4분33초03으로 1위로 끝인했다.

김동혁(3년)은 결승전에서만 8골을 넣으며 팀 우승을 견인했으며, 전체적으로 대회를 이끈 최현석(3년)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선수들이 배영과 자유영, 접영, 플랫폼 싱크로에서 금메달을 딴다록에 걸었다.

또한 남자부 100m에서 서승우(여수한려초6)가 1위로 끝인했으며, 남자유년부 서동하(광주 효덕초 5)가 자유형 400m에서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고 출신인 김지현(19-하이코리아)은 여자부 100m 배영 50m(28초89)와 100m(1분1초88)에서 대회 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2관왕에 올랐으며, 오는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출전자격도 확보했다.

앞서 열린 남자고등부 플랫폼 싱크로에서 류민재·홍정석(광주체고)이 289.17점으로 금메달을, 남고부 수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 고미영컵 전국 대회 정상 올라

김한울·정예진·조승운 금

광주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이 4~5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열린 제4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북도 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13년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난이도 경기에 출전한 남자 고등부 김한울(빛고을고 3년)과 여자 초등부(저학년) 윤예진(용두초 3년)이 금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또한 속도경기에 출전한 조승운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윤(광주 전자공고 3년)도 남고부 1위에 올랐다.

조승운은 난이도 경기에서도 3위를 기록했으며, 여자 중학부 김한길(지산중 3년)은 난이도 경기와 속도경기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북도 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13년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앞서 열린 남자고등부 플랫폼 싱크로에서 류민재·홍정석(광주체고)이 289.17점으로 금메달을, 남고부 수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010-4618-2589

6월 15일(토)

▲빛고을무지개선수회(6월 15~16일(토, 일) 주자도, 원대관 1000m 염주체육관, 1020 학동 홍성체육관)에 출전한 김지현(19-하이코리아)은 여자부 100m 배영 50m(28초89)와 100m(1분1초88)에서 대회 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 밖에도 김민웅(전남제체중 3)은 남고부 접영 50m와 100m에서 은메달을, 자유형 100m에서 4위를 기록했다.

김민화(화정남 6)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남자고등부 플랫폼 싱크로에서 류민재·홍정석(광주체고)이 289.17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010-4618-2589

6월 15일(토)

▲빛고을무지개선수회(6월 15~16일(토, 일) 주자도, 원대관 1000m 염주체육관, 1020 학동 홍성체육관)에 출전한 김지현(19-하이코리아)은 여자부 100m 배영 50m(28초89)와 100m(1분1초88)에서 대회 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 밖에도 김민웅(전남제체중 3)은 남고부 접영 50m와 100m에서 은메달을, 자유형 100m에서 4위를 기록했다.

김민화(화정남 6)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남자고등부 플랫폼 싱크로에서 류민재·홍정석(광주체고)이 289.17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기정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3정기23 심판경정

사 망 자: 송영기(570412-1637918)

최후주소: 전남 고흥군 동광면 매곡리 1259-1

위 광주기정법원의 속상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조에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제권자에 대한 광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함.

기재인: 2013정기23 심판경정(상무정 건너편) 07:30~08:00

기재